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시험

01

5분

“꽃이 필 때 한꺼번에 피는 것은 필 때 절도가 없는 것이므로 그 수명이 열흘이나 한 달을 가지 못한다. 자미화(紫微花)는 꽃잎이 매우 작아서 열 배로 하더라도 연꽃이나 여귀, 모란, 작약의 꽃잎 하나를 당할 수 없다. 꽃이 필 때 힘을 한꺼번에 쓴 적이 없어 오늘 하나가 피고 내일 하나가 피며, 먼저 핀 꽃이 지려 할 때 그 뒤의 꽃이 피어난다.”에서 설명한 ‘자미화’와 동일한 꽃나무는?

- ① 배롱나무
- ② 치자나무
- ③ 영산홍
- ④ 왜철쭉

정답 ①

해설 자미화는 백일홍, 배롱나무라고도 하며, 꽃잎이 작고 오랜 기간 조금씩 피어나므로 절도를 아는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02

5분

다음 중 『양화소록』에서 꽃을 키우는 뜻을 가장 잘 압축한 말은?

- ① 완물상지(玩物喪志)
- ② 관물성신(觀物省身)
- ③ 박학소인(博學小人)
- ④ 제구양신(除舊養新)

정답 ②

해설 완물상지는 바둑이나 낚시, 악기 연주 등과 함께 꽃 키우는 것과 같은 취미 생활이 점잖은 학자의 마음공부에 해가 된다는 뜻이고, 박학소인 역시 유사한 뜻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군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구양신은 낡은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기른다는 뜻입니다. 관물성신은 사물을 보고 자신을 반성하면 지식이 지극해지고 마음이 성실해진다는 뜻이므로 정답입니다.



03

10분

《경민편》은 처음 간행된 이래 19세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경민편》이란 작은 책자가 가진 효용성을 조선의 권력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18세기 전반의 정치적 위기를 겪으면서, 중앙 정부와 지방관들은 이 책의 보급에 많은 힘을 쏟으며 이 책으로 지방민들을 교육하고 계몽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민들의 반감과 불만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국가 권력을 보존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위기감을 느낀 데서 오는 대응이었습니다. 《경민편》의 편찬과 보급을 촉진한 1728년의 정치적 사건은 무엇인지요?

정답 이인좌의 반란[혹은 무신변란]

해설 1728년, 이인좌 등 반(反) 영조의 불만 세력이 일으킨 반란은 조선을 일대 파국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며 조선의 위정자들은 《경민편》의 가치를 새롭게 돌아보게 됩니다. 17세기 중엽에 간행된 이후원 간본을 재차 보급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군현에서 일어났고, 이후원 간본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여 증보한 책이 평양과 상주에서 출현했습니다. 평안도 감사 송인명의 간본, 상주 목사 이정숙의 간본이 그것입니다. 평양과 상주는 무신란의 주요 무대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민심을 가라앉히고 사회를 안정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급했습니다. 평안도 감사와 상주 목사는 《경민편》을 활용, 이 목적을 이루려 했습니다.



- 04** 《경민편》저적(儲積)장에서는 추수가 끝난 뒤 곡식을 낭비하지 말고 쌓아두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모범 사례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조선의 남쪽과 북쪽 두 지역의 풍속을 거론합니다. 《경민편》에서 극구 칭찬하는 모범 지역은 어디일까요?
- 10분

정답 안동

해설 김정국은 《경민편》에서 안동과 북도의 사례를 들어 절약과 낭비가 가져올 효과를 설명하고, 곡식을 아끼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국은 안동은 절약의 모범, 북도 지역은 낭비의 상징으로 묘사했습니다. 낭비하지 말고 곡식을 쌓아두면 어떤 자연재해가 오더라도 건널 수 있다는 《경민편》의 의견은, 겉으로 보기에는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농업 생산을 늘리고 건실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동 사람들은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고, 북도 지방 사람들은 흥청망청 낭비한다는 본문의 짧은 대목은, 16세기 전반 조선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조선 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지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거론하는 북도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물산이 풍부했던 평안도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 05** 우리 역사상 최초의 무예서인 『무예제보』가 16세기 말인 임진왜란 기간중 편찬된 이후 17세기 초 한교가 편찬한 『연병지남』에 필요한 근접전 무예와 함께 임진왜란 이후 도입된 무예를 정리할 필요에서 1610년에 새로운 무예서가 편찬되었다. 최기남의 발문이 붙은 1권 1책의 이 무예서의 명칭은 무엇인가?
- 10분

정답 《무예제보번역속집》

해설 《무예제보번역속집》은 《무예제보》가 편찬된 이후 도입된 새로운 무예의 정리 필요성과 함께 연병지남에 필요한 근접전 무예를 정리하기 위해 편찬된 무예서입니다. 한동안 서명과 발문 등은 전해져왔으나 책의 존재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20세기 말 대구 계명대 동산도서관에서 발견되어 학계에 그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무예제보번역속집》에는 대권(大拳)과 언월도, 구창, 왜검, 협도곤, 청룡언월도 등의 무예와 일본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무예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현재 보물 132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06 신호용으로 북을 치는 방법 중에서 나아가 싸우라는 명령으로 북을 빠르게 마구 치는 것은 무엇인가?
5분

- ① 점고(點鼓)
- ② 기고(旗鼓)
- ③ 너고(播鼓)
- ④ 긴고(緊鼓)

정답 ③

해설 북을 천천히 치는 것을 점고라고 하는데 북소리 한번에 20보를 이동합니다. 점고보다 북을 빠르게 치는 것을 긴고하고 하는데 북소리 한번에 1보를 이동합니다. 기고는 깃발과 북을 합친 용어로 신호 수단을 의미합니다.

07 《만국사물기원역사》에는 장지연이 당대의 신문이나 잡지 등으로부터 얻은 지식 또는 정보를 자료로 삼아 기술했으리라고 추정되는 사례가 발견된다. 이는 장지연이 책이나 글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구절을 옮겨 써두거나 감상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정리하며 글을 써오던 습관을 갖고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학습 방법으로서의 글쓰기를 일컫는 명칭은 무엇인가?
5분

- ① 차기
- ② 유서
- ③ 변안
- ④ 실기

정답 ①

해설 '차기' 혹은 '필기'란 일종의 독서기 혹은 독서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책이나 글을 읽고서 필요한 구절을 옮겨 쓰거나 자신의 감상을 덧붙이는 방식의 글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지연전서》에는 차기나 필기에 속하는 자료가 여럿 남아 있으며,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서술에 활용된 사례도 찾을 수 있습니다.



08 《만국사물기원역사》에서는 '정치'에서 부세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다음 중 제10장 '정치'에 포함되지 않는 사물은 무엇인가?
5분

- ① 호포
- ② 환곡
- ③ 국채
- ④ 맹약

정답 ④

해설 맹약(盟約)은 나라와 나라 또는 집단과 집단 사이의 조약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정치 또는 국제정치에 포함될 만한 '사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국사물기원역사》에서는 맹약을 제8장 '예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맹약이라는 행위의 정치적 효과보다는 맹약이라는 절차에 초점을 맞춘 분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 호포, 환곡, 국채는 모두 부세 또는 재정の問題와 연관된 '사물'인데,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정치 행위의 핵심은 이러한 부세 문제에 있음을 여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09 박은식의 《한국통사》가 다음 보기 중에서 국내외에 미친 영향이 아닌 것은?

5분

- ① 《한국통사》는 일제의 엄격한 통제와 검열로 인해 국내에 유입되지 못하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주로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읽혔다.
- ② 《한국통사》는 하와이에서 번역되어 하와이 거주 한국인들이 읽을 수 있었다.
- ③ 《한국통사》의 출간과 유포는 조선총독부의 통치정책에 영향을 미친 나머지 조선총독부는 《한국통사》의 서술 내용을 반박하고 왜곡하는 저술을 통해 한국인들에게 식민사관을 주입하고자 하였다.
- ④ 도쿄 유학생 장덕수 등이 상하이로부터 《한국통사》 200부를 주문한 뒤 일본을 통해 조선 국내로 반입하였다.

정답 ①

해설 《한국통사》는 중국 상하이에서 출간되었지만 일제의 엄격한 통제와 검열로 인해 국내에 들어가기에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도쿄 유학생 장덕수가 200부를 몰래 주문한 뒤 국내로 반입하였습니다. 훗날 많은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한국통사》를 읽고 한국사에 대한 일제의 식민사관을 극복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조선총독부는 《한국통사》가 조선 국내에 미친 파급력을 염두에 두고 《한국통사》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노력했음뿐더러 《한국통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식민사관을 담은 역사책을 편찬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①이 정확하지 않은 서술입니다.



10 박은식은 《한국통사》에서 일본의 한국 군대해산 이후 벌어진 한국인들의 저항을
5분 상세하게 기술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박승환이 군대해산에 반발하여 자결하였다.
- ② 고종은 을사조약이 불법적이고 강제로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자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였다.
- ③ 군대 해산 이후 대한제국 군인들이 의병 대열에 가담하면서 의병운동이 활발해졌다.
- ④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의 동양평화론의 허구성을 깨닫고 하얼빈에서 이토를 처단하였다.

정답 ②

해설 일본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정부의 무력 기반이라 할 군대를 해산함으로써 대한제국을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하게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사전 공작을 벌였음에도 대한제국 군인들은 일본의 해산 명령에 반발하여 자결하거나 의병 대열에 가담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접한 안중근은 일본이 내세우는 동양평화론이 한국, 중국, 일본의 삼국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주장이 아니라 일본이 한국과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명분임을 깨달았습니다. 다만 ②는 고종이 1907년 6월 만국평화회의 개최 일정에 맞추어 특사를 파견해서 을사조약의 불법성과 강제성을 호소하고자 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군대 해산 이전 시점이므로 순서상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②가 정확하지 않은 서술입니다.